

의류용어의 원류와 그 의미분석  
—오용되는 오래어를 중심으로—

조 규 화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교수

**A Study on the Origin of the Clothing Terms  
and Their Interpretations**

—Focusing on the Misused Foreign Languages—

**Kyu-Hwa Cho**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1995. 7. 28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foreign languages of clothing terms which have been misused, clarify the meanings and suggest the unified term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nglish and Japanese are great parts of the origins of the clothing terms in foreign languages which have been misused. And next, there were French, German, Portuguese and Spanish via English and Japanese.

Especially, the misused foreign languages in styles, materials of clothing are also via English and Japanese. The compound words in Japanese are many parts of them and misused Japanese, Japanese via English, French, German, Dutch, Spanish, Portuguese, and some terms can not be found their origin. (ex: 색채, 컬러, 카라)

In case of the colors of clothing, the terms have the English marking rules and the Japanese pronunciation. And some unified terms are Korean, English, and Chinese letters. (ex: 빨강, 레드, 적색)

There are lots of the misused foreign languages in sewing terms. On each case, the corresponding words in English and Japanese were suggested to understand easily. The most of the unified words were suggested in Korean. (ex: 하찌사시 → 하자시 ; ハジシ, padding stitch, 팔자뜨기)

In clothing construction, there were lots of the misused terms in Japanese and the corrupted terms of Japanese. And so the explains and the unified terms were suggested. (ex: 구세토리, 몸새맞춤, 나찌, 가위집(내기))

“이 논문은 199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품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Finally, the origins of terms in western history of costume were clarified and analyzed the meanings : ① robe, ② jacket, gipon, pourpoint, doublet, justaucorps, habit, frock(coat), cutaway, swallow tail coat, 背廣, lounge suit, ③ coat

Robe is the gown style garment which was used by men and women from the Middle ages, the jacket is a short, coat-like garment and coat is a long outer garment. Each origin is different, however the 'jacket' and the 'coat' were used confusely in the middle of 19th century.

## I. 서 론

의류관련의 문헌은 책마다 의류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키기가 쉽고 교과서의 의류용어는 봉제 공장이나 시장 등 의류산업 현장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한국 의류학회에서는 의류용어집<sup>1)</sup>을 발간했으며, 필자도 패션사전을 집필하였다<sup>2)</sup>. 그러나 사전에서는 각각의 술어는 설명할 수 있지만 의류 용어의 원류에 따른 흐름을 볼 수가 없고, 영어, 프랑스어, 일어를 비교하여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다. 와전된 의류용어를 바로 잡고 용어의 원류를 찾는 것은 의류학의 연구과제이며 의류산업 현장이나 매스컴 관계자, 그리고 일반대중에게 까지도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sup>3)</sup>에 이어 오용되고 있는 의류용어의 외래어 중 일상적인 용어의 국적과 통일어를 밝히고, 서양복 봉제용어 중 외래어의 영어, 일어를 비교, 통일어를 제시하며 서양복식사의 혼동되기 쉬운 기본 용어의 원류와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주로 사전류를 포함한 문헌조사<sup>4)</sup>와 의류산업 현장조사에 의해서 오용되고 있는 용어를 발췌, 대응외국어를 밝히고 통일어를 정하여 그 원류와 의미를 제시하였다.

## II. 일반에게 오용되고 있는 의류용어의 외래어와 그 원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반에게 오용되고 있는 의류용어의 외래어는 그 원류가 어느 언어인가를 파악해야 이들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필자는 의류용어 중 양복에 관한 외래어의 원류는 ① 일본어 ② 영어 ③ 프랑스어 ④ 기타 외국어로 문화의 영향에 따라

서 나타난 예를 들고 의류산업 현장 용어의 외래어 사용 특성을 ① 일본어 ② 일본어의 와전 ③ 한글과 일본어의 복합어 ④ 영어와 일본어의 복합어 ⑤ 생략된 용어로 지적하고, 외래어 표기경향을 ① 어형의 생략 ② 성, 수, 격의 생략 ③ 형용사의 <-ing>, <-ed>의 생략 ④ 단음화 현상 ⑤ 복수명칭 이라고 지적한 바있다<sup>5)</sup>. 이에 의해서 일상생활에서 오용되고 있는 의류용어의 외래어를 형태, 소재, 색채, 기타로 분류하여 대응외국어와 이에 따른 통일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1>(오용되고 있는 의류용어가 문교부고시 외래어 표기 원칙과 다른 경우 ← 표를 했다. 오용되고 있는 용어, 국적없는 용어, 특수한 용어를 제외한 일본어는 폐기할 용어로 \* 표시를 했다.).

### 1. 형태별 오용되고 있는 의류용어

형태에 관한 의류용어에는 국적없이 오용되고 있는 용어가 많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나시<sup>6)</sup>'는 일어의 '소데나시'에서 유래한다. '소데나시'란 '소매 없음'이란 의미로 '민소매'를 말한다. 여기서 와전되어 '나시'는 '민소매 티셔츠', '민소매 블라우스'를 의미한다.

'노타이'는 주로 바지 위에 내놓고 입는 넥타이를 매지 않는 여름용 남자의 셔츠로 영어의 '오픈 칼라 셔츠(open collar shirt)'에 해당된다.

'러닝 셔츠'는 일어의 조어(造語)인 'ランニング·シャツ'(running+shirt)를 영어식으로 발음을 표기한 말이다. 이것은 원래 운동 경기용 셔츠로 기본형은 U 네 크라인이나 라운드 네 크라인의 민소매이며 소재는 주로 메리야스지를 사용한다. '란닝구'는 '란닝구 셔츠(일)'의 약어이다.

- '마이'는 '재킷<sup>7)</sup>'을 말한다.
- '브라자' 셔츠 "세타" 오바 "잠바" 카라 "하이카라" 등은 영어의 일본어 발음이 전래된 말로 폐기되어야 할 용어이다.

<표 1> 형태별 오용되고 있는 의류용어

오용되고 있는 용어중 (표기가 잘못된 용어도 포함) \* 표시가 없는 용어는 사용가능 용어임.

오용되고 있는 용어	통 일 어	대응 외국어 (일어제외)	대응일어
가자 스커트* <sup>1)</sup>	개더 스커트	gathered skirt	ギャザ... スカート
나시* <sup>2)</sup> , 소메나시* 노 타이*	민소매 오픈 칼라 셔츠	sleeveless (open collar shirt)	そでなし スポーツカラ のシャツ
더스코 바지* <sup>3)</sup> 나그랑소매* <sup>4)</sup> 라그 랑(슬리브)*	배기 팬츠 래글런 슬리브	baggy pants raglan sleeve	バギー・パンツ ラグラン・ス リーブ
마이* <sup>5)</sup> , 자켓* 부르진* 부라자* 세라복*	재킷 블루진, 청바지 브래지어 세일러복	jacket blue jeans brassière(프) sailor blouse or sailor jacket sleeve	ジャケット ブルージーンズ ブラジャー セーラ服
소매* 스츠* 세타*, 웨타* 에리션*	소매 슈트 <sup>6)</sup> 스웨터 목둘레선, 넥크라인	suit sweater neckline	そで スーツ セーター ネックライン, 衿割線
오바(코트)* 와이샤쓰*, 와이셔츠* 요쿠* 와기*	오버코트 드레스 셔츠 요크, 바대 윗도리, 상의, (양복)저고리	overcoat dress shirt, white shirt yoke jacket, upper garment	オーバー・コート ワイシャツ ヨーク うわぎ, 上着
즈봉* 츄리닝* 콤비 <sup>7)</sup>	바지 운동복 콤비	trousers trainer suit combination	ズボン トレーニング コンビネーシ ョン
카라*, 에리* 뺨따롱*, 판타 롱* 폴라* <sup>8)</sup>	칼라, 깃 판탈롱, 팔탈롱 자라목, 터틀 넥크라인의 폴 오버	collar pantalon(프), pantaloons knit wear with turtle neckline	カラ, 衿 パンタロン タトルネック・ ラインの ニット・ウエア
하이 카라*	① 하이칼라* <sup>9)</sup> ② 멧쟁이	high collar	ハイ・カラ-

- 1) 영어의 gathered skirt가 일어식 발음으로 와전됨.
- 2) 소매가 없음을 의미하는 일어의 소메나시(そでなし)의 줄임말로써 소매는 '소매'를, 나시는 '없음'을 뜻함. 영어의 슬리브리스(sleeveless)에 해당.
- 3) 허리에 주름이 잡히고 자루같이 험렁한 스타일의 바지를 가리키는 'baggy pants'의 오용된 용어.
- 4) 영어의 raglan sleeve가 일어식 발음으로 와전됨.
- 5) 남, 여성의 재킷류를 가리키는 말로 일어의 료마에(リょうまえ: 兩前)와 가타마에(かたまえ: 片前)의 줄임

- 말인 마에가 와전된 용어
- 6) ① 의복, 양복 ② 신사복 한 벌 또는 옷옷과 스커트로 된 여성복 한 벌
  - 7) 롬비네이션의 준말로 ① 아래위가 붙은 속셔츠. 아래위가 붙은 옷 ② 크기, 색이 다른 가죽등을 섞어 지은 구두 ③ 위, 아래가 다른 양복 한 벌.
  - 8) 터틀 넥크라인은 하이 넥크라인의 일종. 터틀(turtle)이란 '거북'을 의미하는 말로 거북의 목을 느끼게 하는 데서 터틀 넥크라인이라고 함. 목이 긴 스웨터 혹은 니트의 폴 오버(pull over)에 사용. 여기서 폴로는 앞뒤의 트임이 없이 머리로 부터 입는 목이 긴 니트로 된 옷.
  - 9) ① 서양식이나 유행을 따르는 일, 또는 그런 사람 ② 보통보다 운두가 높은 칼라.

- '와이샤쓰'는 일어에서 온 말인데 영어의 '드레스 셔츠', '화이트 셔츠'가 통일어이다.
- '와기'는 일어인 '우와기(上着)'에서 온 말로 '상의, 윗도리, (양복)저고리'를 뜻하며, '즈봉'은 일어이며 '바지'가 통일어이다.
- '츄리닝'은 영어의 'trainer suit'를 일어로 'トレーニング'라고 한데서 와전된 말로 '운동복'을 말한다.
- '폴라'는 일어 '풀오버(풀 오버)'에서 와전되면서 '폴라'로 된 듯하다. '폴라'는 'turtle neckline'의 폴 오버로 '터틀'이란 '거북'이란 뜻이며 자라목을 의미한다. 즉 앞, 뒤의 트임이 없이 머리로 입는 목이 긴 스웨터, 티셔츠 등의 니트로 된 옷을 의미한다.

2. 소재별 오용되고 있는 의류용어

'레자'는 영어의 'leather'를 일어에서 '레자'로 발음한 데서 온 말로 '인조가죽'을 말한다. '벨벳'은 영어의 'velvet'에서, '비로드'는 포르투갈어의 'veludo'가 일어의 '비로드'(ビロード)로 되어 전래된 용어로 비로드와 벨벳은 동일한 의미이다<sup>1)</sup>. '세무'는 영어의 '스웨이드(suede)'가 일어의 '세무'로 되어 전래된 말로 '스웨이드'가 통일어이다<표 2>.

3. 색채별 오용되고 있는 의류용어

◦ '곤색(紺色)'은 '감색'의 일어로 통일어는 '감색'이며 '카라'는 '컬러(color)'의 일어로 통일어는 '색, 색채, 컬러'이다. '레드', '빨강', '적색(赤色)' 등과 같이

<표 2> 소재별 오용되고 있는 의류용어  
오용되고 있는 용어중 \*표시가 없는 용어는 사용가능

오용되고 있는 용어	통 일 어	대응 외국어 (일어제외)	대응일어
넛포* 레자*, 레자* <sup>10)</sup>	편성(분), 니트 인조가죽	knit artificial leather	ニット レザー
메리야스	메리야스 <sup>11)</sup>	medias(스), meias(포)	メリヤス(英大 小)
벨로아* <sup>12)</sup>	벨루어 <sup>13)</sup>	velours( 프, 영)	ペロア
베루벳포* 비로도*	벨벳, 비로드 비로드, 벨벳	velvet veludo(포)	ベルベツタ ビロード(天鵝 絨)
세무(가와)*, 세무*	스웨이드	suede	セーム(革)
고르덴*, 골덴*	코듀로이	corduroy	コールテン, コール天
데도롱*, 데도론*	폴리에스테르, 테도론(일)	(polyester), Tetoron	テトロン

- 10) 인조가죽을 뜻하는 영어의 artificial leather를 줄여서 가죽을 의미하는 레더(leather)만을 인조가죽의 의미로 사용한 일어가 와전된 것임
- 11) 편문기계로 만든 니트. 원래 양말을 의미하는 포르투갈어의 medias, 스페인어의 medias가 일어에 와전되어 그것이 우리말로 유입된 것. 우리말에서는 메리야스직으로 잔 셔츠, 팬티 등의 내의를 의미하기도 한다.
- 12) 비로드(포)의 프랑스어 블루르(velour)를 영어로 발음한 것임.
- 13) 프랑스어는 블루르, 영어는 벨루어라고 발음함.

색채용어는 영어, 한글, 한자가 함께 통일어로 사용되고 있다<표 3>.

4. 기타 오용되고 있는 의류용어

기타 외래어의 예를 들면 영어, 일어 외에 프랑스어, 독일어, 네델란드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sup>10)</sup>. 이들 외래어도 일어나 영어를 통해서 와전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테테르'는 네델란드어가 일어를 통해서 전래된 말로 통일어는 '레이블', '상표'이며, '리꾸사꾸'는 독일어가 일어를 통해서 들어온 말로 통일어는 '배낭'이다. 또한 '벡타이'를 '타이' 등과 같이 생각하여 사용하는 언어도 많이 나타났다<표 4>.

이상과 같이 일반에게 오용되고 있는 의류용어를 형

<표 3> 색채별 오용되고 있는 의류용어  
오용되고 있는 용어 중 \*표시가 없는 용어는 사용가능

오용되고 있는 용어	통 일 어	대응 외국어 (일어제외)	대응일어
곤색* <sup>14)</sup>	감색(紺色)	dark blue, navy blue	こんいろ
구로*	검정(색), 흑(색), 블랙	black	黒, くろ
미도리*	초록, 녹색(색), 그린	green	グリーン, 緑
시로*	흰색, 백(색), 화이트	white	ホワイト, 白, しろ
아까*, 렛드*	빨강, 적(색), 레드	red	レッド, 赤, あか
자이로*	누런(색), 다(색), 브라운	brown	茶色, ちやいろ
칼라*, 카라* 카키(색)	색, 색채, 컬러 국방색, 카키(색)	color, colour Khaki(도)	カラー カキ

14) dark blue, navy blue에 해당하는 감색이 일어식 표기로 오용되어 사용

태별, 소재별, 색채별, 기타로 구분하여 그 의미를 설명하고 원류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나타났다.

① 일어의 사용

소데 - 소매, 소데나시 - 민소매, 에리 - 깃, 자이로 - 다색, 즈봉 - 바지

② 영어의 일어가 그대로 전래된 용어

샤쓰(shirt) - 셔츠, 세타(sweater) - 스웨터, 아이롱 - 다리미, 잠바(jumper) - 점퍼

③ 일어의 영어조어가 그대로 전래된 용어

런닝구(샤쓰) - 러닝 셔츠, 스포츠 카라 - 컨버터블(convertible)칼라, 와이샤쓰 - 드레스 셔츠, 하이카라 - 멧쟁이

④ 일어가 와전된 용어

곤(紺)색 - 감(색), 마이 - 재킷, 나시 - 민소매 셔츠

⑤ 프랑스어, 네델란드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의 일어가 전래된 용어

테테르(네) - 상표, 리꾸사꾸(도) - 배낭, 판따롱(프) - 팡탈롱, 보레로(스) - 볼레로, 비로도(포) - 비로드

<표 4> 오용되고 있는 의류용어 : 기타 일상용어  
\*표시가 없는 용어는 사용가능 용어임

오용되고 있는 용어	통 일 어	대응 외국어 (일어제외)	대응일어
구찌베니*	입술연지, 립스틱	lipstick	くちべに(口紅)
다이아 디자인*	다이아몬드 디자인, 의장(意匠)	diamond design	ダイヤモンド デザイン
넨싱* <sup>15)</sup>	풀린 용	runs(미), ladder(영)	でんせん(傳線)
도라이* 드라이	(헤어)드라이 드라이 클리닝	hair dry dry cleaning	(ヘア)ドライ ドライクリーニング
라벨*, 레테르* <sup>16)</sup>	레이블, 상표	label(영, 프) letter(네)	ラベル, レッテル
룩쿠삿쿠, 리꾸사꾸* <sup>17)</sup>	배낭	Rucksack(도)	リュックサック
링*	반지, 고리	ring	リング
마후라* <sup>18)</sup>	머플러	muffler	マフラー
반도*	벨트, (허리)띠	belt, band	バンド
빵떡모자*	베레모	béret(프)	ベレー
스냅	스냅	snap	スナップ
쓰메끼리*	손톱깎이	nail clipper	つめきり(爪切り)
스레치*	스티치	stitch	ステッチ
심	심, 솔(기)	seam	シーム
싱*	심(心)	interfacing, interlining iron	しん(恋)
아이롱*	다리밟질	iron	アイロン
아파페르*	어패럴, 의류	apparel	アパレル
악세서리*	장신구, 액세서리	accessary	アクセサリ
마찬다이자*	M.D. 머천다이저	M.D, merchandiser	エム・ディ, マチンダイザ
유니섹스*	유니섹스	uni-sex	ユニセックス
유도리* <sup>19)</sup>	여유분, 늘품		ゆとり
조우리*	짚신, 샌들	sandals	ぞうり, 草履
자꾸*	지퍼	zipper	ジッパー, チャック
카바*	덮개, 커버	cover	カバー
캇트*	커트, 컷	cut	カット
타이 핀*	넥타이 핀	nectie pin	ネクタイ・ピン
테라*	테일러, 양복(점) 맞춤(점)	tailor	テーラー
하리 핀*	바늘 핀	needle pin	はり(針) + ピン(pin)
헤어 반도*	머리 띠, 헤어 밴드	hair band	ヘア, バンド

- 15) 직물의 울이 풀린 상태
- 16) 상표를 의미하는 네덜란드어 letter의 일어식 와전
- 17) 배낭을 가리키는 독일어 Rucksack이 일어로 발음되어 와전된 용어
- 18) 영어의 머플러(muffler)의 일어식 발음의 와전
- 19) 여유분을 의미하는 일어를 그대로 표기한 것

⑥ 국적없는 용어

츄리닝 - 운동복, 폴라 - 자라목의 폴 오버 그리고 오용되고 형태별, 소재별, 기타 일상용어, 등에 나타난 의류용어의 표기특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일본어만이 갖는 독특한 용어('이키'와 같은 예) 이외의 모든 일본어
- ② 어형의 생략  
런닝구 - 러닝 셔츠, 오바 - 오버 코트
- ③ 일어 한문의 한국식 발음  
가봉 - 시침바느질, 채촌 - 치수재기
- ④ 일어의 와전  
마이 - 재킷, 미까시 - 안단, 하찌사시 - 팔자뜨기
- ⑤ 어두에 노(no)를 첨가한 용어  
노 슬리브 - 슬립리스, 민소매
- ⑥ 한글 표기 규칙에 어긋난 것  
세일 - 세일
- ⑦ 상품명  
나나이찌 - 일자(형)단춧구멍, 바바리 - 레인 코트(체스터필드 코트)

III. 오용되고 있는 봉제용어의 외래어와 그 의미 분석

1. 오용되고 있는 바느질 용어의 대응 외국어와 통일어

바느질 용어는 한글이 많이 사용되지만 일어가 폐기되는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일어의 사용이 많다. 일반적으로 의류산업 현장에서는 일어를, 학교에서는 한글을, 외국에서는 외국어를 사용하므로 일어, 영어, 한글이 혼용되고 있어서 바느질 방법에 대한 용어의 의사소통이 안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어를 제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영어와 한글을 찾아 <표 5>에서 비교하여 이해하기 쉽게 했다.

<표 5>에 의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용되고 있는 바느질 용어의 대부분은 일어이므로 폐기되는 용어이며 통일어는 한글이 많고 영어도 가끔 쓰인다.

- ① 일어의 사용 ; 시쓰케 - 시침질
- ② 일어의 와전 ; 하찌사시 - 팔자뜨기
- ③ 영어의 일어 사용 ; 오바롯쿠 미싱 - 오버록 미싱

<표 5> 오용되고 있는 바느질 용어의 외래어와 통일어  
\*표시는 폐기될 용어임.

오용되고 있는 외래어	대응일어	대응일어	통 일 어
가가리누이* ← 까가리누이* 가리누이*, 시쓰케* 가사베누이*	かがり縫い 假縫い, しつけ 重ね縫い	overcast stitch basting stitch under stitched seam, lapped seam, lap seam	휘감치기, 가름솔 시침질 누름상침솔
간누이* 기리지쓰케*	環縫い, 鎖縫い 切りじつけ	chain stitch tailored tack, tailor tacks, tailor's tack	체인 스티치 실포뜨기
구루미누이*, 오리후세누이*	くすみ縫い, 折り伏せ縫い	flat felled seam, trade seam, fell seam, tailored fell seam	쌍솔
구시누이*, 나라비누이* 나나메지쓰케*	くし縫い, 並縫い 斜めじつけ	running stitch, plain stitch diagonal basting, tailor basting satin stitch	홉질 어긋시침
누이키리* 사텐 스텝치* 다마부치누이* ← 다마부찌* 마쓰리구케*	縫い切り サテステッチ たまぶち縫い, 玉縁 まつりぐけ	binding slip stitch, blind stitch top stitching	새틴 스티치 감싼시침 공그르기
오사에미싱*	おきえミシン		상침, 토비 스티치
젠가에서누이* 지누이* ← 지누시* 지도리가케*	全返し縫い 地縫い, じぬい 千鳥がけ	back stitch running stitch catch stitch, spanish work, flat catch stitch, herringbone stitch zigzag seam	되돌려박기 초벌박기 새발뜨기
지구자꾸누이* ← 지그자꼬*	ジグザク縫い		지그재그 솔

와리누이*	割縫い	plain seam, open seam slot seam	평솔 가름솔 맞주름솔
하베코미누이* 메* 하시가가리누이* ← 하시까가리누이*	はめ込み縫い 目 端かがり縫い	overcast seam, hand-overcast seam padding stitch, pad stitch hemming stitch	휘감치기 가름솔 팔자뜨기 감치기
하지시* ← 하찌사시*	ハジシ	prick stitch	숨은 상침
마쓰리*	まつり	even back stitch half back stitch	온막음질 반막음질
호시누이*, 호시카가리* 혼가에서누이*	星縫い, 星かがり 本返し縫い	french seam welt seam	통솔 넘솔
한가에서누이*	半返し縫い		
후쿠로누이* 후세누이*	袋縫い 伏縫い		

2. 오용되고 있는 의복구성의 외래어와 통일어

오용되고 있는 의복구성의 외래어의 용어와 통일어는 <표 6>과 같다. 지면관계상 설명이 필요한 용어만 밑에 주를 달아 그 의미를 설명하고(1~9) 그림이 필요한 경우 첨가했다[그림 1~16]. 이를 보면, 다음과 같이 일어와 일어의 와전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밖에 영어와 일어사용, 영어의 일어사용, 상품명 등에 의해서 오용되고 있다. 통일어는 한글이 대부분이다.

- ① 일어의 사용 ; 가쿠시 - (호)주머니, 우라 - 안(감)
- ② 일어의 와전 ; 미가시 - 안단
- ③ 영어와 일어사용 ; 오바로쿠 시아게 - 푸서박기
- ④ 영어의 일어사용 ; 마카 - 본그리기
- ⑤ 기타 상품명 ; 바바리 - 레인 코트

III. 혼동하기 쉬운 서양복식사 기본술어의 원류

1. 남녀복의 겉옷

1) 로브(robe) : robe(영, 프), Robe(도)  
남녀복의 겉옷 명칭으로 중세이후 서양복식사 중에 많이 나타나는 용어에는 로브(robe), 가운(gown) 등이

< 표 6 > 오용되고 있는 의복구성의 외래어와 통일어  
외래어 중 \*표시는 사용 가능한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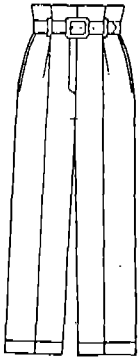
외래어	통일어	영 어	그림 번호
가마(釜)	북집	turn-up cuffs	(1)
가부라(鑷)	(발) 접단		
가자리미싱(かざりミシン)	장식 박기/ 상침(上針)	pocket	(2)
가쿠시(隠し)	(호) 주머니		
가타마에(片前)	홀여밈(웃)/홀자락	straight button hole	(3)
가타쓰케(型付け)	본붙이기		
고시(腰)	허리		
고시타케(腰丈)	엉덩이길이		
고하(股下)	살아랫길이		
구세(癖) <sup>1)</sup>	몸새/다트		
구세토리(癖取り)	몸새맞춤		
기리카에(切替)	(천) 바꾸기		
기리카에센(切替え線)	절개선		
나나이치(なないち)	일자(형) 단춧구멍		
나오시(直し)	고침질		
노바시(伸ばし)	늘이기	two-piece sleeve	(5)
나찌	가워집(내기)		
누이메(縫目)	담/박음새	binding	(6)
누이시로(縫代)	시접		
니마이소데(二枚袖)	두장소매	suspenders	(7)
다마부치누이(玉縁縫い)	감싼시접		
다마부치아나(玉縁穴)	입술단춧구멍	loose	(8)
다스키	멜빵		
루스*	여유분/넉넉	loop	(9)
루프*	단춧고리		
마스터 패턴 <sup>2)</sup>	기준옷본	master pattern	(9)
마에다테(前立て <sup>3)</sup> )	(단추집) 덧단		
마치(熨)	무	marker	(9)
마카*	본그리기		
미니플레이션*	옷본 조정	manipulation	(9)
무카자리(無節り)	민짜		
보빈*	① 북 ② 북토리	bobbin	(9)
세타케(背丈)	등길이, 등기장		
소데구리(袖→)	진동, 소매마루	full length	(9)
소타케(總長)	총길이		
스소(裾)	① 도련 ② 밑단<치마, 바지의 경우>	bottom, hem	(9)
스와리(座り) <sup>4)</sup>	본새		

시보리(絞り)	(뜨개) 조르개, 고무뜨개	placket neckline waist band sash	(9)
시아게(仕上げ)	끝손질		
시타(下)←시다	보조원		
아키(明き)	뜨기, 트임		
에리구리(袴裾)	목둘레선		
오비(帯)	① 허릿단 ② (허리)띠		
이세(いせ) <sup>5)</sup>	홀출임		
퀼팅*	누비,		
클리핑*	가워집내기,		
패턴*	① 옷본, ② 무늬,		
하기(接ぎ)	① 잇기, ② 깎기		
헤리(縁)	바이어스감	pocket	(9)
후쿠로(袋)←후꾸로	(호) 주머니,		
헝 조로에(晶揃え) <sup>6)</sup>	구색갖추기, 어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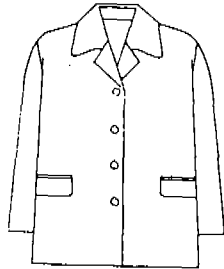
- 1) 옷감을 몸풀에 맞추기 위하여 허리나 어깨 등 일정한 부분을 주름을 잡아 꿰매는 일. 또는 그 줄인 부분
- 2) 그레이딩(grading)에 쓰일 수 있는 기준적인 옷본
- 3) 코트, 셔츠, 바지 따위의 앞프림에 단춧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낸 다른 단
- 4) 마름질한 천, 특히 소매나 칼라의 극선부분을 붙이는 곳에 따라서 다리미로 오그리거나 늘여서 자리를 잡는 일
- 5) 바느질선의 길이와 천의 양을 달리하는 것. 즉 곱게 홀질하거나 박은 다음 실을 잡아당겨 조직을 조밀하게 함으로써 옷감을 입체화 시키는 방법이다.
- 6) 제품(의류)를 출하할 때나 진열할 때에 스타일 색상 소재 따위의 디자인이나 치수(크기)별로 구분하여 만든 하나의 포장 또는 진열의 단위.

있다. 이들 용어는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므로 형태가 다양하여 혼동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로브는 프랑스어가 중심이고 영어에서도 사용하여 더욱 혼동하기 쉬우므로 그 의미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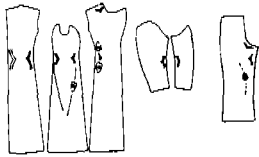
‘로브’는 원래 게르만어의 ‘약탈품’을 의미하는 ‘raub, rauba’가 어원<sup>1)</sup>으로 영어의 ‘가운(gown)’에 해당되는 프랑스어이다. 12~13세기경 로브는 의류 전체를 가리키는 집합명사였다. 동시에 코트, 쉬르코, 망토의 ‘한 세트의 예복’을 의미했지만 15세기에는 단독으로 사용되어 ‘실내에서 입는 정식 길옷의 일종’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여성용 로브는 길이가 바닥까지 오고, 남성용은 무릎길에서 발목까지 여러가지가 있었다. 이것은 데깅장식, 금 은사의 자수 등으로 호화롭게 장식했다. 16세기 이후 남성의 평상복이 더블렛, 저킨으로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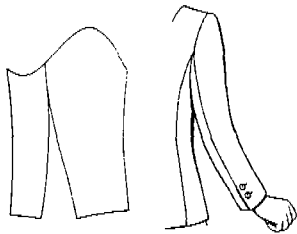
[그림 1] 발(점단) 가부라\*



[그림 2] 홉여밈(옷)/홉자락 가타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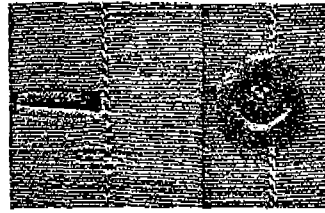
[그림 3] 늘이기 노바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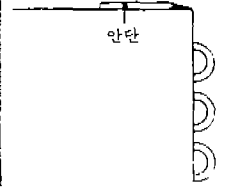
[그림 4] 두장 소매 니마이소데\*



[그림 5] 감싼시점 다마부치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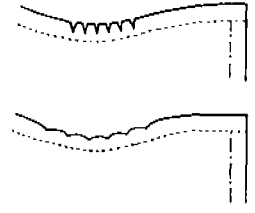
[그림 6] 입술단춧구멍 다마부치아나\*



[그림 7] 단춧고리 루프\*



[그림 8] (단추집) 덧단 마에다테\*



[그림 9] 가워집내기 클리핑\*

순히 옷을 의미하기도 하여 오용되기 쉬우므로 번역시에는 주의해야 한다.

### 2. 남성복의 상의와 외투

서구 근대의 남성복으로 착용한 상의(jacket류)는 옷길이가 길어서 외투(오버 코트)류와 오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재킷류는 중세말에서 근대에 걸쳐 그 용어가 복잡하게 변한다. 이러한 혼동을 막기 위해서 남성복 상의의 대표적인 복식을 중세말에서 현대에 걸쳐 그 의미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재킷(jacket) ; jacket(영), jacquette(프), Jackett, Jacke(독)<sup>14)</sup>

‘Jacket’은 사전에 의하면<sup>15)</sup> ① 보통 소매가 달린 옷, ② 외부를 싸고 있는 것, 덮는것(이 경우 ‘coating, covering’의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이라고 되어 있다. 즉, jacket은 ① 남자가 평상복으로 입는 소매가 달린 겹옷으로 옷길이가 짧은 것을 말한다. 또한 사냥, 승마시에 연미가 없는 짧은 코트도 포함하며 구명복(life jacket)처럼 특수한 목적에 쓰이는 몸에 걸치는 것도 있다. ② 포피, 외피 등 피복물. 이 경우 ‘재킷’은 ‘coating’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재킷’의 어원은 프랑스어의 고어 ‘jaque’에 지소접미

에 따라 로브는 주로 여성용 겹옷의 총칭이 되었고, 남성용 로브는 국왕, 귀족의 의식복, 법복, 박사복으로 남았다. 그리고 바로크, 로코코 시대에 걸쳐 프랑스 로드가 유럽 각지에 전파됨에 따라 로브는 그대로 사용되어 시대나 지역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타났다. 현대에는 일반적인 드레스의 의미로 사용된다<sup>12)</sup>.

한편 우리말의 로브는 국어사전<sup>13)</sup>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① 아래 위가 내리닫이로 되어 있는 길고 폭신한 겹옷 ② 성직자의 제복, 법관의 법복 ③ 의복이라는 3가지 의미가 있다. 따라서 로브는 앞뒤의 내용에 따라 단



사 '-ette'를 연결하여 프랑스어에 정착된 것으로 영어에는 14세기, 독어에는 15세기경 도입되었다<sup>16)</sup>. 역사적으로 보면 jacket의 원형인 'jack'은 14세기 중기에 등장한 무릎이나 힙까지 오는 튜닉형식의 퀴팅을 한 군복이었다. 이 군복에 화려한 소재를 사용하고 형태만 만드는 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일반복식이 되었는데, 이것을 'jack' 혹은 'jacket'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코타르디, 더블릿, 푸르푸앵, 재킷이 입고 있는 형태만으로는 혼동되기 쉽다. 그러나 'jacket'은 15세기 후반을 장식한 겹옷으로 허리를 가늘게 강조하고 몸통을 꼭맞게 하였으며 16세기에는 영어로 'jerkin'이라 불렀다. 안에 착용한 '더블릿'과 같은 형태가 되면서 앞을 터서 단추로 여미고 이때 칼라가 달리게 되었다. 'jacket'이 현재의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가 된 후였다. 이때에는 넓게 'coat'라고 불리는 짧은 상의 형태의 겹옷이 되어 중세 성립 당시의 jacket의 형태를 그대로 전하는 한편, 16세기에 나타난 특징인 앞트기와 단추, 칼라, 라펠, 포켓, 소매를 붙이는 것 등이 그대로 남게 되었다. 19세기 말 여성복에도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성별을 초월한 남녀가 모두 입는 옷으로 코트보다 옷기장이 짧은 의복을 가르킨다.

2) 쥐퐁(gipon) ; gipon, jupon, jupe(영), gippon, gippe, jupe, Jupon(프), jupon, Wams(도)<sup>17)</sup>

'쥐퐁'은 서구 남성이 십자군 전쟁시 착용했던 튜닉형 무릎길이의 상의로 천 또는 가죽에 심을 넣어 만들었다 [그림 17]. 이것은 12세기경 쇼트 튜닉, 혹은 jupe라고도 했고<sup>18)</sup> 14세기경에 일반화되어 남녀 모두 착용했다 [그림 18]. 따라서 짧은 튜닉과 혼동하기 쉽고 또한 'jupe, jupon'은 여성의 스커트를 의미할 때가 많으며 특히 jupe(영어의 skirt)는 스커트만이 아니라, 남성복 상의의 허리밑 부분을 가르킨다. 이때문에 르네상스 시대의 남성복의 저킨의 허리밑 부분을 스커트를 따로 입는 것으로 잘못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쥐퐁'은 'guibba'라고 하여 아라비아어에 기원을 둔 고대 프랑스어의 'gipe, jupe'에서 유래한다<sup>19)</sup>. 이것은 pourpoint 이 등장한 초기에는 형태상 구별이 어려워 혼동되기 쉬우나 15세기초 이후 명칭이 사라지고 'doublet, pourpoint'이 대신하게 되었다 [그림 10, 11].

3) 푸르푸앵(pourpoint) ; pourpoint(영, 프), doublet(영), Wams(도)<sup>20)</sup>

'Pourpoint'은 '퀴팅을 한다'는 뜻으로 이러한 형식의

로 만든 의복을 말한다. '푸르푸앵'은 영, 불 공통용어이나 프랑스어가 일반적이고 영어는 '더블릿'(doublet)을 주로 사용한다. 어원은 'pour+point'의 합성어로서 '자수(刺繡)한다' '누빈다'의 의미를 지닌 프랑스 고어의 'pourpoint'에서 유래한다. 이것은 서구의 남성들이 14세기 중기에서 17세기 중반기까지 입었던 대표적 상의이다. 초기에는 'augueton(프), 영어는 acton(영), gamboison(프), gambison(영)'이라 부르는 일종의 무장복의 총칭이었다. 이것은 본래 갑옷의 속이나 겉에 착용했지만 14세기 중엽에 일반화되어 평상복으로 되었다. 다양한 형태이지만 패드와 퀴팅을 한 것이 특징으로 여기서 명칭이 유래한다.

4) 더블릿(doublet) ; doublet(영), pourpoint, doublet(프), Wams(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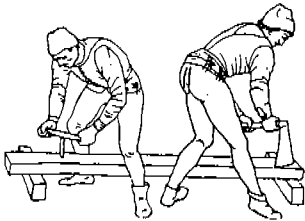
형태보다도 패드를 넣거나 퀴팅이 특색인 14세기 중기부터 17세기까지의 서구 남성복 상의의 총칭을 더블릿이라고 한다. 어원은 'double+트'로 '이중으로 된 것'을 의미하며 프랑스 고어의 'doublet(두브레)'에서 유래한다. 이 명칭의 기원은 프랑스어이지만 주로 영국에서 사용하였고 프랑스에서는 같은 형태의 의복을 'pourpoint'이라고 불렀다. 더블릿은 14세기 영국에서 등장하여 15세기에 일반화 되었지만 그 명칭은 16세기에 사라졌다. 더블릿이 등장하기 전에 영국에서는 이것을 'gipon'이라고 불렀다. 프랑스에서는 14세기 중기에 출현한 푸르푸앵이며 14세기 후반 남자의 평상복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15세기의 남자 상의를 프랑스어로 'pourpoint', 영어로 'doublet'이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중세 후기의 남성복은 그 형태와 명칭의 관계가 복잡하여 다른 동의어로 'gambison, action, jack' 등도 있어 정의하기 어렵다<sup>21)</sup>. 16세기에 'jacket, jerkin'을 'doublet' 위에 겹옷으로 입기도 하였으며 형태의 구분이 모호했다. 17세기 후반에 군대의 오버 코트였던 'cassock'이 겹옷으로 되고 이어서 'justaucorps'가 남자의 상의로 바뀌면서 푸르푸앵은 그 명칭과 함께 사라졌다. 따라서 푸르푸앵은 14세기 부터 17세기까지 오랫동안 사용되었지만 더블릿은 푸르푸앵보다 그 용어의 생명이 짧아서 오용되기 쉽다.

5) 쥐스토코르(justaucorps) ; just(-)au(-)corps, just à corps(프), justacorps, justacore(영), Justaucorps(도)

17세기 말부터 18세기까지 유럽 남성이 착용한 긴 상



[그림 10] 쥐퉁(jupon)  
Planché. J. R, A Cyclopaedia of Costume on Dictionary, Lond., 1876-1879, p.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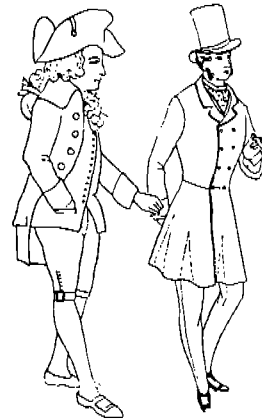
[그림 11] 쥐퉁(jupon)  
石山彰編, 服飾辭典, 東京, ダウイット社, 1972, p. 329



[그림 12] 아비(habit)  
田中千代, 服飾事典, 東京: 同文書院, 1973, p. 397



[그림 13] 아비(habit)  
石山彰外編, 服飾辭典, 東京: 文化出版局 1992, p. 20



[그림 14] 프록(코트)(froc (coat))  
1790년(좌), 1853년(우) 영국 石山彰編, 服飾辭典, 東京, ダウイット社, 1972, p. 698

의, 프랑스어인 쥐스토코르는 '신체에 딱맞는' 의복이라는 의미에서 유행하여, 1642년 초에 그 기록이 보이나 1670년대에 일반화 되었다. 그 이전의 남성복 상의였던 pourpoint이 사라지고 나온 의복으로 이것은 veste, culotte와 함께 당시 남성의 기본적 의복구성으로 현대 신사복의 스텔피스의 근원이 되었다. 루이 16세때에는 이러한 의복을 'habit, 혹은 habit à la française'라고 불렀다. 따라서 형태는 상의보다 옷길이가 길어 코트처럼 보이지만 상의류 계통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외투로 오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6) 아비(habit) : habit(프), ① dress, costume, clothes ② coat, eveningdress(영), Gesellschaftszug(도)<sup>23)</sup>

프랑스어의 '아비'는 라틴어의 'habitus(상태)'가 어원으로 12세기이래 광의의 '의복'을 의미하며 특히 신분, 지위, 종교상의 의복을 나타내는 의미였다. 18세기 후반(루이 15세 말기) 남성용 긴 상의였던 'justaucorps' 대신 'habit à la française'가 나타나면서부터 '아비'가 정착했다. 이것은 상의 부분이 좁고 전체적으로 유연한 실루엣이며 견이나 비로드 등의 값비싼 직물에 금사로 화려하게 수놓아 장식한 궁정복의 명칭이었다. 1815년후에 '아비'는 궁정복, 시민복으로 크게 나뉘어졌고 제2 제정시대(1852~1870)에는 남성용의 르댕고트(redingote)가 출현하여 궁정복의 아비는 궁전의 의식용으로 남게 되고[그림 12] 이전의 시민용 아비는 야회복, 사교복(habit noir)으로 되었고 평상복은 울(wool)로 만들게 되었다[그림 13]. 현대의 의미는 ① 신체에 착용하는것, 의복 ② habit de cérémonie로서 남성의 정식예복을 가리킨다.

- 7) 프록(frock) : frock(coat)(영), robe, frac(프), Keid, Kittel Bluse(도)

어원은 중세 영어의 'frok, froc', 중세 프랑스어의 'froc'에 연결된다. 이것은 '수도승의 두건달린 외투, 혹은 그러한 두건'을 의미하며, 프랑스어의 'hroc'이 기원이라고 하기도 한다. 중세에는 거칠은 재질로 만든 여유있는 소매가 달린 외의를 일반적으로 말했지만 중세 이후 영어에서 사용되었다. 13세기의 여성용 드레스에도 이 명칭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농부, 인부의 작업복을 'smock frock'이라고 했다. 16세기 남성용의 여유있는 의복의 'jerkin' 혹은 'jacket'을 'frocked jacket' 또는 'frock'이라 부르기도 했다. ① 여성복의 경우 16, 17세기에는 예복 이외의 평상복인 '가운(gown)'을 '프록'이라 했으며 18, 19세기에 걸쳐서 여성복은 평상복이나 예복에 관계없이 얇은 천으로 만든 뒤가 트인 드레스를 '프록'이라고 했다<sup>23)</sup>. ② 남성복의 경우 1730년대 이후 턴 다운 칼라가 달린 평상복의 코트를 '프록' 혹은 '프록 코트'라고 한다[그림 14]. '프록'과 '프록 코트'를 다른 옷으로 오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번역된 것으로 동일한 것이다.

- 8) 커터웨이(코트)(cutaway(coat)) : cutaway(coat)(영), queue de morue, queue de pie(프), Cutaway, Cut(도)<sup>24)</sup>

'커터웨이'는 1840년경 등장한 상의의 앞자락을 허리에서 뒷자락에 걸쳐 사선으로 잘라낸 형태로 형용사의 'cutaway front'의 의미이다. 이러한 연미(燕尾)가 있는 긴 상의를 '커터웨이' 혹은 '커터웨이 코트'라고 하며 이를 '모닝 코트(morning coat)'라고도 하는데 현재 남성의 낮에 입는 예복 정장이다.

- 9) 스왈로 테일 코트(swallow tail coat) :

swallow tail coat, tail coat, dress coat(영), habit de soirée, habit noir, habit à queue(de pie)(프), Frackanzug(도)

현재 남자 예복의 밤의 정장인 '연미복(燕尾服)'은 'swallow tail coat'를 직역한 용어로서 무릎정도 길이의 상의의 앞길 허리부분을 커팅하고 뒤는 연미형 즉 제비꼬리 형태처럼 길게 갈라진 형태의 의복을 말한다. 18세기 말에 의복 앞길의 허리에서 스커트 자락을 자른 '테일 코트'가 등장하여 남성의 평상복으로 착용했다. 19세기 후반부터 '테일 코트'는 밤의 정장이 되고 검은 색을 입었다.

- 10) 라운지 슈트(lounge suit) : lounge suit, business suit(영국영어), sack suit(미국영어), complet, (veston)(프), Straßenanzug, Anzug(도)

상의, 조끼, 긴바지의 쓰리피스가 오늘날처럼 등장한 것은 1815년경이며 등이 넓은 'lounge suit'의 등장은 1820년경이다. 이것은 상의의 앞자락을 둥근 사선으로 커팅한 것으로 오늘날의 신사복 정장을 말한다. 독일의 마인쯔에 있는 맞춤형인 빌트간스(Wildgans)에서 남성 신사복을 같은 천으로 처음 만든 이래 이를 계기로 라운지 슈트는 1850년경 등장하게 되었다. 이전까지 영국에서는 약식의 재킷인 '라운지 재킷'이 유행했으나 라운지 슈트가 등장하여 1860년대에 정착했다. 1860년대 영국에서는 라운지 재킷, 웨이스트 코트, 바지를 동일한 천으로 만든 인포멀한 의복이라는 의미로 '라운지 슈트'라고 불렀다. 상의가 여유있고 편하게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명칭이 생겼으며 미국영어는 'sack coat' 즉 부대(sack)처럼 여유있는 상의라고 하여 이들을 'sack suit'이라고 한다<sup>25)</sup>. 이와같이 그 당시 영어권에서는 'jacket'과 'coat'는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재킷은 테

일 코트, 모닝 코트와 같은 스커트(skirt)부분이 있는 옷길이가 긴 상의에 비해 옷길이가 짧다. 평상복으로 '라운지 슈트'가 등장함에 따라 이전의 테일 코트, 모닝 코트는 예복이 되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 오늘날과 같은 남성의 평상복으로 신사복(정장)이 되었다.

이를 우리말에서는 '신사복(정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의 '신사복(紳士服)'은 '신사가 입는 양복'<sup>26)</sup>으로 상의, 조끼, 바지의 세가지가 한 벌을 이루며 조끼가 빠질 때도 있다.

### 11) 세비로(背廣 일)

일어인 '세비로'의 어원<sup>27)</sup>은 ① 구조상 등부분이 좁은 모닝 코트에 비해 '등이 넓은 의복'이라는 의미로 양복점의 옷을 만드는 사람들의 관용어가 보편화 된 말 ② 런던의 고급 맞춤복점이 있는 '세빌 로(Savil Row)'에서 나온 말 ③ 관복에 대한 서민복, 즉 '시빌 클로즈(civil clothes)'에서 와전된 말 등이 있지만 정설은 없다. '라운지 슈트'를 가르키는 신사복(정장)을 의미하는 일어가 우리말에 전해진 것이다.

### 12) 코트(coat)

겉옷 - coat(영), cotte(프), Rock(도)

외투 - overcoat(영), pardessus(프),

Mantel Überzieher(도)

石山彰의 「服飾辭典」에 의하면<sup>28)</sup> 'coat'의 원형은 중세 영어 'cote'이고, 중세 프랑스어 'cotte', 중세 이태리어 'cotta'와 거의 비슷한 형태를 나타낸다. 이들의 어원은 고대 게르만어 'kozso, kozza, chozzo'에 있으며 중세 게르만어에 'kotze'가 있고 '간단하고 험령한 외투(外套)'를 뜻한다. 우리말에서는 ① 외투(줄 오버 코트), 상의 ② 외피(外被)를 의미한다.

오늘날 착용하는 코트의 원형은 17세기 후반에 가서야 나타나지만 남자가 착용하는 의복 명칭으로는 13 세기에 영국 및 유럽대륙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자가 모두 착용한 광의의 튜닉형 의복을 'cote, cotte'라 하는데서 시작했는데 특히, 겉옷과 속옷 사이에 입는 꼭 맞는 튜닉형태의 경우를 'cote, cote'라 하고 'surcot(F.), surcoat, surcote(E.)'는 그 위에 입는 겉옷으로 사용된 의복의 명칭으로 길이, 소재, 모양에 구별에 있었으나 14, 15세기에 와서 주로 남자의 '겉옷'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외투'와 '남성복 상의' 또는 '남성복처럼 생긴 여성복 상의'의 의미가 되었다. 이 의미는 영어의 가운데나 프랑스어의 로브에 해당하지만 영어의 로브는

특히 스커트 부분을 가르킴으로 영어, 프랑스어의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다. 겉에 착용하는 의복의 의미는 '외투'와 '겉옷'(상의)의 두가지 계열로 나뉜다. 전자에는 영어의 'cloak, mantle', 프랑스어의 'manteau' 등이 있으며 후자는 영어의 'jacket, doublet, cassock, frock' 등이 있으나 각각의 한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히 구분짓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코트와 재킷이 19세기 중엽에는 혼용되었지만 코트와 재킷은 그 원류를 달리하고 있어서 혼동하여 오용되기 쉽다.

## V. 결 어

이상과 같이 일반에게 오용되고 있는 의류용어의 외래어의 원류는 일어의 사용, 영어를 비롯한 프랑스어, 독일어, 네델란드어, 스페인어, 폴투갈어의 일어가 전래된 용어, 일어의 영어 조어나 일어의 와전이 많고 국적없는 용어도 많았다. (예 : 색채, 켈러, 카라)

색채별 오용되고 있는 의류용어의 통일어는 영어, 한글, 한자어가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 : 빨강, 적색, 레드) 그리고 이들 오용되고 있는 용어의 표기특성은 일본어, 어형의 생략, 일어의 한문의 한국식 발음, 일어의 와전, 어두에 노(no)를 첨가한 용어, 한글표기 규칙에 어긋난 것, 상품명 등에 의해서 나타났다. 오용되고 있는 바느질 용어의 외래어는 일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어의 와전, 영어의 일어 사용이 많았다. 그래서 이들 용어의 대응영어, 일어를 각각 제시하여 서로 이해하기 쉽게 했으며 이들의 통일어는 주로 한글을 사용하였다.

(예 : 하찌사시 → 하자시 : ハジシ, padding stitch, 팔자뜨기)

오용되고 있는 의복구성의 외래어는 주로 일어나 일어의 와전이 많고 영어와 일어사용, 영어의 일어사용, 기타 상품명이었다. 그래서 이들 용어를 설명하고 통일어를 제시했다. (구세토리, 몸새맞춤, 나찌, 가위집(내기))

혼동하기 쉬운 서양복식사의 기본술어인 (1) robe (2) jacket, gipon, pourpoint, doublet, justaucorps, habit, frock(coat) cutaway, swallow tail coat, 세비로(背廣), lounge suit (3) coat의 원류를 밝히고 그 의미를 분석한 결과 robe는 중세 이후 남·여성복에 사용된 가

운형식의 의복이며, jacket류는 길이가 짧은 상의, coat는 길이가 긴 의복형의 의복으로 그 원류는 각각 다르나 19세기 중엽 jacket과 coat는 구별없이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재킷은 남성복으로 등장하였지만 19세기말 여성복에 도입된 이래 남녀복으로 남았으며 옷기장은 gipon, pourpoint, doublet은 짧고 habit, frock, cutaway, swallow tail coat는 길지만 세비로, lounge suit은 다시 짧아져 현대에 이르게 되었다.

### 참 고 문 헌

- 1) 한국의류학회 (編), 의류용어집, 1994.
- 2) 曹圭和編著, 耕春社, 1995.
- 3) 조규화, 오용되고 있는 의류용어의 원류와 그 의미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19권 3호, 1995, pp. 483-503.
- 4)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1, 2, 3, 어문각, 1991.  
이희승, 국어대사전 제 3 판, 민중서림, 1994.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3rd G&C Merriam Co., 1981.  
あらかわそおべえ, 外來語辭典, 東京: 角川書店, 1981.  
섬유용어집, 한국섬유공학회, 1979.  
Charlotte Mankey Calasibetta,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Fairchild Publications, N.Y., 1985.  
服裝文化協會編, 服裝大百科事典, 上, 下, 東京: 文化出版局, 1971.  
石山彰編, 服飾辭典, 東京: グヴィッド社, 1972.  
石山彰外監修, 服飾辭典, 東京: 文化出版局, 1993.  
田中千代, 田中千代服飾事典, 東京: 同文書院, 1978.  
田中千代, 新田中千代服飾事典, 東京: 同文書院, 1994.  
吉村誠一編, ファッション新語辭典, 大阪: チャネラー,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菊池職部一編, ファッション・ビジネス基礎用語辭典, 東京: パンタンデザイン研究所, 1986.  
杉野芳子編著, 圖解服飾用語辭典, 東京: 鎌倉書房, 1986.  
丹野郁編, 總合服飾史事典, 東京: 雄山閣, 1980.  
문교부 외래어 표기 용례집, 국어연구소, 1991.  
봉제기본용어순화집, 문화체육부, 1995.  
생활외래어순화집, 문화체육부, 1994.
- 한국의류수출조합, 봉제통일용어, 1976.
- 현대패션용어사전, 서울: 동아일보사, 1986.
- 李升九編著, 正書法資料, 서울: 大韓教科書(株), 1990.
- 5) 조규화, 오용되고 있는 의류용어의 원류와 그 의미 분석, pp. 485-495.
- 6) 앞글, p. 487.
- 7) 曹圭和, 服飾辭典, 耕春社, 1995, p. 95.
- 8) 조규화, 오용되고 있는 의류용어의 원류와 그 의미 분석, p. 498.
- 9) 石山彰外監修, 服飾辭典, 東京: 文化出版局, 1993, p. 712.
- 10) 조규화, 오용되고 있는 의류용어의 원류와 그 의미 분석, p. 486.
- 11) 石山彰編, 服飾辭典, 東京: グヴィッド社, 1972, p. 858.
- 12) 石山彰外監修, 服飾辭典, 東京: 文化出版局, 1993, p. 944, p. 965.
- 13) 이희승編著,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4, p.1, 102.
- 14) 石山彰編, 服飾辭典, 東京: グヴィッド社, 1972, p. 336.
- 15)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1981, p. 720.
- 16) 石山彰編, 服飾辭典, 東京: グヴィッド社, 1972, p. 336.
- 17) 앞글, p. 329.
- 18) R. Turner Wilcox, The Mode in Costume, Charles Scribner's Sons, N.Y., 1958, p. 34, p. 36.
- 19) Planché. J.R, A Cyclopaedia of Costume on Dictionary, Lond., 1876-1879, p. 317.
- 20) 石山彰編, 服飾辭典, 東京: グヴィッド社, 1972, p. 688-689.
- 21) 앞글, pp. 446-447.
- 22) 앞글, pp. 15-16.
- 23) 앞글, pp. 697-698.
- 24) 앞글, p. 121.
- 25) R. Turner Wilcox, The Mode in Costume, Charles Scribner's Sons, N.Y., 1958, p. 301.  
丹野郁編, 總合服飾史事典, 東京: 雄山閣, 1980, pp. 243-244.
- 26) 이희승編著,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4, p. 2300.
- 27) 丹野郁編, 總合服飾史事典, 東京: 雄山閣, 1980, pp. 243-244.
- 28) 石山彰編, 服飾辭典, 東京: グヴィッド社, 1972, pp. 242-243.